

##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역할 정립 및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한 토론

박 순 환 (농기주부모임 전국연합회장)

농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늦은감은 있지만 "여성도 농업생산자"라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인정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역할과 농촌여성문제의 인식 등에 관련한 여러 민간 부문 학자들의 연구와 여성농민단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농촌여성의 능력 개발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수없이 제시되었지만 좋은 정책과 프로그램 중 얼마만큼이 실제로 실천되어 여성농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하는 점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제시하는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사회적 지위 향상,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계획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여성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몇 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제의 추진과정에는 반드시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실천 그리고 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평가가 요구되어 진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한국농업을 주도해 나아갈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역할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입장에서 국가 및 민간 연구소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여성농업인의 문제가 어떤 것이고 정부와 관·민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으면 하는가 하는 바램을 이야기 하겠다.

## 1.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

### 가.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우리나라 농촌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일거리가 "자녀교육"이라는 농촌여성 의식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레저와 여가선용", "취미 생활과 지역활동" 등으로 다른 나라 여성들이 답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 농촌여성들이 유독 "자녀교육"으로 답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농촌여성의 관심사가 자녀임은 말할 나위가 없고 그만큼 교육 여건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의 보육문제, 초중등학생의 특기교육, 방과후 교육, 대학 입학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비단 농촌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요즈음은 학교 통합문제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통합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 획일적 정책보다는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 나. 여성농업인의 건강문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요통, 관절염 등의 농부증 해결 방안,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다.

우리 농촌 여성들은 크게 욕심내지 않는다.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려는 민·관의 노력을 원한다. 현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방안으로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농가도우미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산후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차원과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 확보, 노인 노동력 재창출, 나아가서 농촌여성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농촌여성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길 바란다.

최초 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 사전 준비에 정부, 민·관 연구단체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 다. 문화공간의 부족문제

마을내에 노인, 여성, 청소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마을내의 전통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는 문화의 부재 상태이다.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의 집 설립 등 정부에서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은 실시하고 있지만 수적으로 아직 미미하고 위치, 시설, 활용도 등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업적인 문화시설이 있더라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물론 농촌지역사회의 각종 단체, 특히 우리 여성단체에서 활발한 조직 활동을 통해 주장하고 요구해야 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공동사업으로 인식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 2.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문제해결 방향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복지 개선 사업을 농촌여성에게 국한하여 취급하게 되면 포괄적이지 못하고 여성농업인의 진정한 숙원사업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할 때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부 소관이고 "청소년문화"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미룬다면 개선이 어렵게 된다.

농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안이라 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타부서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농촌여성 지위 향상의 한 지표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더 발전하여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계획,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덧붙여 여성농업인의 숙원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여러 부처간 공동노력에 의해 다루어지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은 민간 연구 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박순화 : "국가 및 민간연구소의 연갈 정립 및 사업추진방향"에 관한 토론

꾸준히 연구를 하겠지만 민간연구소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연구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면 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조사,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정책담당자들을 움직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의 자녀 양육문제, 건강문제, 문화생활 등 복지 증진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사안일 수 있으나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50만 여성농업인들의 현실과 바램은 곧 우리 농촌 전체의 현실과 바램이고 한국농업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한 국가의 미래도 밝지 못함을 고려한다면 국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